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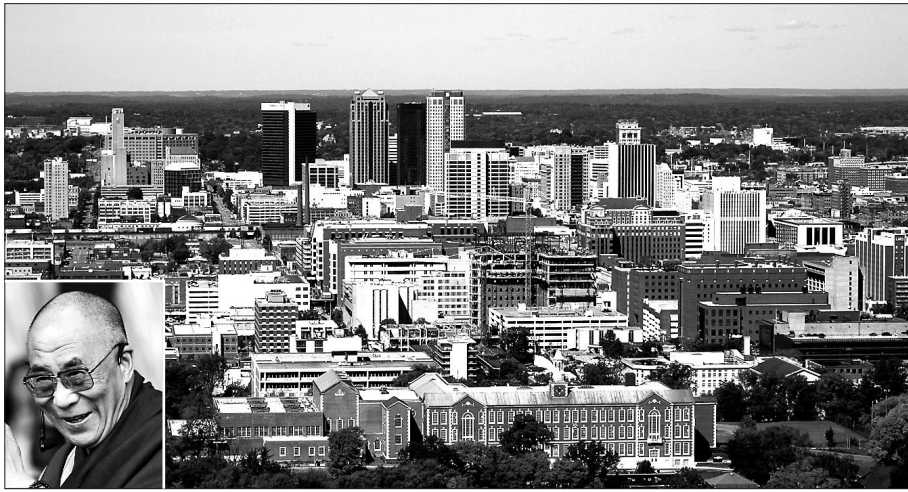
美 앨라배마 주 버밍엄, 달라이 라마 열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달라이 라마가 오는 9월 24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Alabama)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를 처음 방문한다”고 전해한 <AL> 지는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 7개월을 앞둔 버밍엄 시가 벌써부터 들쭉거리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의 의미를 조명하는 논의가 불교계는 물론, 특히 윤리,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월 4일 메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는 버밍엄 불교계의 지도자인 텐진 프리아달쉬(Ven, Tenzin Priyadarshi) 스님이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시민운동의 흐름을 소개’한 텐진 프리아달쉬 스님은 “모든 인간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며, 앨라배마 주의 인종 간 소통을 호소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자치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달라이는 데 노력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 내에서 ‘윤리와 가치를 위한 달라이 라마 센터(Dalai Lama Center for Ethics and Values)’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텐진 프리아달쉬 스님은 2002년부터 메사추세츠공과대학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화 가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버밍엄 시의 ‘싱크 탱크



14대 달라이 라마. 그는 오는 9월 24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Alabama)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를 처음 방문한다.

14대 달라이 라마 버밍엄 9월 24일 첫 방문 윤리·인권계, “인종 간 소통의 길 넓히는 계기 될 것”

(think tank) 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버밍엄 시는 미국의 첫 번째 가치인 ‘시민의 권리’라는 무형의 유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이어온 유서 깊은 도시”라고 강조한 윌리엄 벨(William Bell) 버밍엄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또 소외 계층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 등이 버밍엄 시정의 주요 과제”라며 “이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과의 문제에서 티베트인들의 나침반으로서 살아온 달라이 라마의 첫 방문을 기대하는 이유이자, 그의 가르침

속에서 ‘버밍엄 시정의 방향을 생각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목화의 주(州)’로 잘 알려진 앨라배마는 전체 인구에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이상”이라고 전해한 <AL> 지는 “매년 일종차별 문제로 물살을 앞둔 앨라배마 주에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작게는 버밍엄 시, 크게는 앨라배마 주에서 ‘인종

간 소통의 길을 열자’는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 인종적 편견 속에서 자란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회의’가 불교를 통해 치유될 수 있었다”는 버밍엄 샬라 명상 그룹(Birmingham Shambhala Meditation Group)의 조셉 라무르(Joseph Lamour·58) 씨의 말을 인용한 <AL> 지는 “인종 차별로 두려움과 절망에 직면하는 시기에 불교는 라무르 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종교”였으며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앨라배마 주의 대도시 버밍엄(Birmingham)에서 ‘인간은 모두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고통을 면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AL> 지에 따르면 버밍엄 예술박물관(Birmingham Museum of Art) 4월 27일부터 ‘티베트 불교유산’을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석 큐레이터 도널드 우드(Donald A. Wood) 박사는 “티베트 불교유산 전에서는 탕카, 만다라 등 티베트 불교를 소개할 수 있는 유물을 비롯해 14대 달라이 라마의 소장품 등 200여 점의 전시물 예정”이라며 “버밍엄 시민들이 티베트와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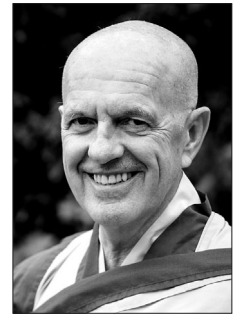
죽음에서 마음의 평화 찾다

美 켈상 티로파 스님, 샬럿 시민 신심 다잡아

‘죽음’이란 주제는 사람들이 대화 주제로 삼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럿(Charlotte)에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는 한 스님이 있다.

<City News> 지가 4월 3일 ‘샬럿의 바즈라드하라(Vajradhara) 불교센터의 원장 켈상 티로파(Kelsang Tilopa) 스님 <사진>이 ‘죽음과 그 한계를 넘어(Death and Beyond)’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으로 눈에 띄는 포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ity News> 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 나머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켈상 티로파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스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샬럿 시민들이 죽음을 넘어 내면의 연민과 자비를 끄집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벽안의 청중 역시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특강 분위기를 전했다.



“샬럿 시민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선보이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는 켈상 티로파 스님은 “죽음을 생각할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밟고 나면 죽음에 긍정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재의 생활에 더욱 노력하는 지신 역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켈상 티로파 스님은 “우리의 몸은 유한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명상은 그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L.A. ‘히말라야 불교미술’展 성황

1300여 년 전 불교미술 40여 점 등 총 150여 점 전시



탕카. 티베트 탕카(thangka). 이번 전시회에는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던 탕카는 6.1미터에 달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히말라야 불교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성황이다.

<Liberty Voice>지는 “파사데나의 노턴 사이먼 박물관(Norton Simon Museum in Pasadena)이 오는 8월 25일까지 개최하는 ‘히말라야의 불교미술 전(Buddhist Art of the Himalayas)’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도했다.

3월 28일부터 인도, 티베트, 네팔 등지의 1300여 년 전의 불교 조각과 회화 작품 40여 점을 비롯해 150점을 선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히말라야 불교미술’전은 태평양 아시아 박물관(Pacific Asia Museum)과 아시아 미술 박물관(Asian Art Museum) 등에 소장된 히말라야 불

교미술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회에서 6.1미터에 달하는 대형 탕카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는 노턴 사이먼 박물관의 레슬리 덴크(Leslie Denk) 대변인은 “기대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전시회가 끝나는 8월 25일까지 히말라야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패션쇼, 무대공연, 연주회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사데나 올드 타워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노턴 사이먼 박물관’은 1975년 노턴 사이먼 경의 소장품을 근간으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인도 네팔 등 아시아 남부 평양 아시아 박물관(Asian Art Museum)과 아시아 미술 박물관(Asian Art Museum) 등에 소장된 히말라야 불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국’ 미얀마 인구조사서 무슬림 제외 논란

로힝야족 불법 이민자로 간주...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아”

불교국가 미얀마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이 제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인구조사를 지원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은 4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구조사는 국제적 기준과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처리 문제다. 미얀마 정부는 인민국가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이주민의 후손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983년 이후 30여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인구조사에서도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현재 경찰, 군인을 대동한 채 각 가구를 방문 중인 미얀마의 인구조사팀은 인종을

묻는 질문에 ‘로힝야’라는 답이 나올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뒤, 다른 가구를 방문한다는 게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로힝야족이 자신들을 방글라데시 출신자를 뜻하는 ‘벵골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미얀마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불교도들의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불교도들은 이번 조사에 로힝야족에 대한 통계가 포함될 경우 공식적으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최근 일부 불교도들은 라카인주에서 국제구호단체들이 로힝야족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과 주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불교도와 로힝야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족 사이의 종교 분쟁으로 200여명이 숨지고 14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UNFPA는 “인구조사에서 로힝야족을 제외하면 라카인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인구조사 자체의 신

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3월 31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 시민과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당부한 뒤 “인구조사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63@hyunbul.com

깨달은 템플스테이 하루

- 깨달은 108배 수행 (20분)
표정+자세+호흡법+알아차림+깨달은절
- 염불+독경 (자세+호흡법+운율법 완벽 : 30분)
- 동아버림 참회명상 (10분) : 텅텅비움, 우주와 하나되기
- 고마움의 감사명상 (10분)
우주법계 모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기
- 참마음 참나명상 (10분) : 즉석에서 누구나 불성체험
- 미소명상 (10분)
삼매체험 제일 쉬운걸! 행복호르몬 쏟아짐
- 태양오로라 명상 (10분) : 자신의 찬란한 오로라 즉석체험
- 절교육, 절수행점점 (1시간)
- 영선,와선,도인체조 명상 (1시간)
- 수행법문 (30분)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 수행비전, 심신건강원리

※ 수행중 숨을 어깨, 가슴으로 역호흡하면 머리와 몸에 병이 온다

▶ 청견스님 직접 수행 지도
▶ 시간 : 매주 화 ~ 일 오전10시 ~ 오후 4시(월요일 휴무)
▶ 비용 : 무료시 원칙, 자율보시 가능
▶ 주소 : 대구 수성구 매곡동 1344-23 다비지 5층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 전화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전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